

# 생활문학으로서의 와카\*

南 二 淑\*\*

---

## 目 次

---

1. 첫머리에
  2. 고대 생활 속의 와카
    - 2.1 구애와 결혼
    - 2.2 죽음과 비탄
    - 2.3 연중행사·연회를 위한 和歌
    - 2.4 교카와 교훈가
    - 2.5 주술로서의 와카
  3. 끝머리에
- 
- 

## 1. 첫머리에

일본문화학보 25집에 수록한 拙稿 「일본고전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방법」에서 필자는 고전문학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고전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인간이 어떤 삶을 영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고전은 당대의 삶의 총체방식을 담은 텍스트인 까닭에 지금까지 행해져온 문학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문학적인 것의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학이 삶과 어떻게 긴밀하게 관계하며 발전해 왔는지 그 유용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군산대학교 자체 학술공모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고전문학전공

本稿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전통문학으로서 일본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인 와카가 일본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삶과 어떤 식으로 관계하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지면을 요하는 작업이며 해박함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주로 万葉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와카가 일본인의 삶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논문의 주제인 <생활문화로서의 와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영(題詠)과 같이 미리 제목이 주어지거나 병풍가와 같이 어떤 미적인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와카가 아닌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노래만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래를 분석해 가다 보니 생활 속에 문학이 융해되어 이 두 가지를 확연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사랑의 노래에도 개인적 체험에 의거한 경우와 예술적인 창작 행위의 결과물인 사랑 노래가 있다. 후자의 경우 순수한 창작행위라고 할 수 있는 <恋歌>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짓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체험이 있어야만 창작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생활에 기반을 두고 읊어진 와카, 그리고 다시 이 와카가 삶의 깊이나 폭에 깊이 관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고대 생활 속의 와카

### 2.1 구애와 결혼

연애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문화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깊게 자리한 가장 자연스런 감정의 발로이다. 그래서인지 남녀간의 불타는 사랑이나 연모의 감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 사회적 성격 문학적 표현의 양식은 민족에 의해 또는 시대에 의해 천변만화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万葉集』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694 恋草を力車に七車積みて恋ふらく我が心から

「사랑을 하면 돌아나는 연초 그것을 짐수레에 일곱 번 실을 정도로 사랑하는 내 마음은 큰 것이 되었다. 그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연초’라는 풀이 돌아난다. 연초가 돌아나기 시작하면 뽑아도 뽑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처럼 멈추지 않는 게 자신의 마음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695 恋ひは今あらじと我は思へるをいづくの恋そつかみかかれる

3816 家にありし 櫃に鍵刺し 蔵めてし 恋の奴がつかみかかりて

695는 「지금에 와서는 사랑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관절 어디에 사는 어느 놈의 연심인지 덤벼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덤벼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816은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집에 있는 상자에 열쇠를 채워 가두어 둔 사랑의 노예가 덤벼든다」라며 사랑이란 한없이 돌아나는 풀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재난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万葉集』 1권의 권두가도 유라쿠 천황(雄略天皇; 418~478년 재위)의 구혼가로 시작되고 있다.

1 籠もよ み籠持ち ふくしもよ みぶく持ち この岡に 菜摘ます児 家告らせ 名告らさね そ  
らみつ 大和の国は おしなべて 我こそ居れ しきなべて 我こそいませ 我こそば 告らめ  
家をも 名をも

노래의 뜻은 「바구니 들고 호미 들고 이 언덕에서 나물뜯는 아가씨여 집을 고하라 성스러운 야마토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먼저 고할까 집과 이름을」이다. 나물 뜯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지방에 천황도 봄나들이 나왔다가 어떤 아가씨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묻는 행위는 청혼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이름을 고하는 행위는 승낙한다는 표시이다. 『古事記』에 의하면, 이 아가씨는 가스카(春日) 언덕으로 도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万葉集』 권두가가 구혼가로 시작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최고의 권력자라는 위엄을 갖추기 위해 와카의 영력(靈力)을 빌어 ‘성스러운 야마토 이 나라는’하며 위엄을 갖추고 자신의 구혼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있

다. 천황은 권력이 아닌 노래의 힘을 빌어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통치해나가는 신비한 인물로 형상되었던 인물이었던 셈이다.<sup>1)</sup>

그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랑노래가 실려 있다.

2364 玉垂れの小簾のすけきに入り通ひ来ね母が問はさば風と申さむ

3723 あしひきの山路越えむとする君を心に持ちて安けくもなし

3724 君が行く道の長手を繰り畳ね焼き滅ぼさむ天の火もがも

2364의 노래는 사랑하는 님에게 「아름답게 드리워진 발 사이로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물으시면 바람이라 답하리다」라고 읊어 대담하게 상대를 향해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3723과 3724는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의 좌천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어 주고받은 증답가의 일부이다. 3723은 「산길을 넘으려고 하는 당신을 마음속에 꼭 잡아 두지만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읊자, 3724는 「당신이 가는 긴 노정을 모두 거뒀다 불태워 줄 천화(天火; 여기서는 하늘의 의지에 의해 일어난 화재를 의미함)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하며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와카를 매개로 하여 노래하고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소개할 여유가 없지만, 2권의 권두가 역시 이와이히메 황후가 길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천황을 생각하며 남편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을 와카로 전하고 있으며 14권의 작자 미상의 서민적인 아즈마우타(東歌)에도 애뜻하면서도 솔직 담대한 연애 감정을 표현한 와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 『古今集』는 어떠한가?

서문을 보면, 당시의 와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今の世の中、色につき、人の心、花になりけるより、あたる歌、はかなき言のみいでくれば色好みの家に埋れ木の、人知れぬこととなりて、まめなる所には花薄穂にい出すべきことにもあらずなりたり。

당시의 와카의 위상을 설명한 글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 감성을 추구해 사람들의 마음 또한 화려함을 원해 내용이 변변치 못한 노래, 덧없는 노래만 읊어지고 있다. 호색한들의 집에 묻혀 있는 나무처럼 유식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오지도 못하니 역새풍

1) 최충희·구정호·박혜성·고한범·이현영 지음(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45쪽 참조

의 이삭만도 못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色好み」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호색한’이란 말로 해석했는데, 남녀 관계의 미묘함이나 풍류를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당시도 역시 주로 연애 감정을 표현할 때 와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古今集』 와카의 3분의 1이상을 「恋歌」가 점하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2)</sup> 『古今集』의 다음 노래를 예로 보자.

下つ出雲寺に人のわざしける日、真静法師の導師言へりけることを歌によみて、  
小野小町がもとにつかはしける 阿倍清行朝臣

556 包めども袖にたまらぬ白玉は人を見ぬめの涙なりけり

返し こまち

557 おろかなる涙ぞ袖に玉はなす我はせきあへずたぎつ瀬なれば

556의 와카는 고토바가키(詞書; 노래가 불리게 된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한 글)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작자인 기요유키가 고승이 이야기 해준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며 오노노코마치에게 보낸 노래이다. 노래의 뜻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소매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구슬은 귀한 불경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소매 속에 간직한 구슬과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을 때의 눈물인 것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에 대해 고마치는 「당신의 눈물은 적당히 흐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소매 속에서 구슬이 되어 있지요. 내 눈물은 폭포처럼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멈출 수가 없군요」하고 응수하고 있다. 같은 범회를 갖는 자리에서 경전의 내용을 응용해 주고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기요유키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고 채치있게 받아내는 고마치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弥生の朔日より、忍びに人にもものらいひて、のちに、  
雨のそほ降りけるによみてつかはしける

616 起きもせず寝もせて夜をあかしては春のものとながめくらしつ

616의 노래는 연애의 달인 아리와라노 나리히라의 노래이다. 3월 1일경 어떤 여성과 사람들 눈을 속여가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2) 『古今集』 와카의 대부분이 원래의 모습을 전하는 경우보다 独泳歌로 손질되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고토바가키(詞書)가 있는 노래를 예로 들었다.

내렸기 때문에 읊어 보낸 노래이다. 「당신과 만난 후 일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 상태로 하룻밤을 지냈는데, 종일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대 생각에 잠겨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의 귀족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키워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랑하는 남녀가 자신의 기분을 상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와카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한시로는 전달할 수 없는 자신들의 감정을 와카라는 형식을 빌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色好みの家に埋れ木の、人知れぬこととなりて」의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와카는 사적인 연애의 장에서 읊어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後撰集』의 시대에는 전성기를 이루는데, 그 자세한 사정을 고토바가키(詞書き)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0번 노래의 「알게 되어 기다리는 남자로부터 소식이 없어 보낸(あひ待ちける人の、ひさしう消息なかりければ、つかはしける)」, 545번의 「애정은 있으면서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여자에게 보낸(心ざし有りながら、え逢はず侍りける女のもとにつかはしける)」, 547의 「남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는 곳이 많아 자주 찾아주지 않아, 여자도 남자관계로 소문이 난 것을 원망하자 그 답으로(男の、ここかしこに通ひ住む所多くて、常にしもとはざりければ、女も又色このみなる名立ちけるを、うらみ侍ける返事に)」, 549번의 「신분차로 얻기 어려운 여자를 연모하여 보낸(得がたかるべき女を思かけてつかはしける)」, 907번 「여자가 변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낸(女の心変わりぬべきを聞いてつかはしける)」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고받은 노래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를 발휘했는데, 그러한 예는 헤이안의 모노가타리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伊勢物語』 23단이나 『大和物語』 149단을 보면 본처가 있는 야마토에 살던 남자가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자 가와치에 있는 여자의 집에 드나들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 본처가 구차하게 이런 저런 간섭을 하지 않고 단정하게 꾸미고 앉아서, 혼자서 산길을 넘어가는 남편을 걱정하며 다음의 노래를 읊는다.

風吹けば沖つ白波たつた山夜半にや君が一人越ゆらむ

(바람이 불면 난바다에 흰 파도가 인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다츠타산을 그분은 한반중에 혼자서 넘고 계시겠지)

남겨둔 아내가 마음에 걸려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사이에 이 노래를 들은 남자는 마음을 돌이켜 본부인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종류의 이야기는 『大和物語』 158단에도 계속된다.

오랫동안 사이좋게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집으로 데려왔다. 본처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에 두고 드나들지 않자, 본처는 이를 괴로워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가을이 깊어 밤이 길어질 무렵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그때 사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본처는 조용히 이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남편이 본처에게 벽 너머로 어떤 기분으로 사슴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물었다. 그때 여자는 갑자기,

我もしかなきてぞ人に恋ひられし今こそよそに声のみ聞け

라는 노래로 대답했다. <나도 일찍이 사슴이 짹 짹 울듯 당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지금이야말로 벽 너머로 목소리만을 듣고 있지만.....> 하고 대답했다. 남자는 이 노래에 감동하여 새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본처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스토리이다.

『源氏物語』 「葵」 卷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하룻밤의 정사를 나눈 다음 날 기누기누노 우타(後朝の歌)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노래는 없이 편지만 남기고 가자 상대여성인 미야스도코로가 읊어 보내자 플레이보이 히카루겐지가 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袖ぬるる恋路とかつは知りながら下り立つ田子のみづからぞうき3)  
(진흙탕인줄 알면서 사랑에 빠져버렸네 괴로운 것인지를 알기에 더욱 슬퍼.)  
浅みにや人は下り立つ我が方は身もそばつまで深き恋路を  
(그대는 알게 빠졌나 봐요. 나는 온 몸이 빠질 만큼 깊은 사랑인 것을)

미야스도코로의 노래는 중의법을 사용해 사랑에 빠진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데, 겐지는 상대의 심적 상태를 헤아리지 못한 듯한 노래를 보내고 있다. 모노가타리 속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의 단절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에서 배치된 노래로 기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도 이와 같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와카의 증답이 행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즈미시키부와 아쓰미치 황태자와의 사랑의 전말을 전개하고 있는 『和泉式部日記』에서는 두 사람이 와카를 주고받으며 따돌리기도

3) 이 노래를 겐지의 주석서인 『細流抄』에서는 ‘모노가타리 와카 중의 최고의 와카(物語中第一の歌)’라고 평하고 있다.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서로 호흡이 잘 맞아 주고받는 경우이다.

[敦道親王 贈] うたがはじなほうらみじと思ふとも心に心かなはざりけり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건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소.  
 [和泉式部 答] 恨むらむ心は絶ゆなかりなく頼む君をぞ我もうたがふ  
 원망하는 마음은 버리지 마세요. 한없이 의지하고 있는 당신  
 을 나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와카의 공백기에도 구혼이나 연애의 사적인 감정만큼은 와카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며, 『古今集』를 규범으로 하는 헤이안시대에 사랑이나 결혼은 와카 없이는 불가능했다.<sup>4)</sup>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남성이 여성에게 와카가 담긴 편지를 보내 그 의중을 떠보고 그에 대해 여성이 답가를 보내는 식이었다. 와카를 읊지 못하면 연애도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낭만적인 사회였던 것이다.

## 2.2 죽음과 비탄

인간은 기쁠 때도 노래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하고 싶어한다. 죽음은 시는 물론 옛날이야기나 꿈, 풍류담, 농담 속에까지 담겨 인간의 삶과 늘 한 덩어리가 되어 논해져온 테마이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万葉集』卷三의 서두는 만가(挽歌)로 시작된다.

쇼토쿠태자는 길가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을 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415 家ならば妹が手まかむ草枕旅に臥やせるこの旅人あはれ

「집에 있었다면 아내의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을 텐데, 여행지에서 쓰러졌다. 이 나그네는 가엾구나」 죽은 사람을 보고 그의 집에서 그를 기

4) 고킨슈는 사랑의 진행과정에 의해 와카를 배열해 당시에는 하나의 사랑과 결혼을 위한 참고서 같은 역할을 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헤이안 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와카는 마음을 담아 내는 유일한 도구였다. 남성귀족들이 관료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 조건으로서 한시 한문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에 비해 여성은 와카를 배워 그것을 읊는 것에 의해 스스로의 교양이나 감수성을 닦아가고 있었다. 헤이안 여류작품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많다.

다리는 아내를 떠올리며 죽음이라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포교활동을 해나가는 반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이라는 시설을 운영했었다. 빈사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수녀와 자원봉사자는 우선 이름을 묻고, 다음으로 종교를 묻는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종교의 장례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녀와 봉사자의 손을 잡은 채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죽은 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이 활동에 대해 처음부터 호된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죽음의 문제에 그와 같은 봉사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젓먹이에게 왓친을 주는 쪽이 좋지 않는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녀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고독한 것이 아닌가 라고 반론했다고 한다.<sup>5)</sup> 결국 테레사 수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운영은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활동이며, 이것은 죽은 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는 행위였던 셈이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진혼가를 읊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다음 노래도 『万葉集』의 일부분이다.

- 223 かもやまのいはねしまける我をかもしらにといもがまちつつあるらむ
- 224 けふけふと아가まつきみはいしかはのかひにまじりてありといはずやも
- 905 若ければ道行き知らじ賂はせむ黄泉の使ひ負ひて通らせ

223은 히토마로가 이와미 지방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남긴 辞世歌로 「기모야마의 바위 베개 삼아서 누운 나일세. 사정 모르는 당신은 기다리고 있겠지」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안쓰러워 하는 심정을 읊고 있다.

224는 히토마로가 죽었을 때 아내 요사미노 오토메가 읊었던 노래로 되어 있다. 「오늘은 오려나 내가 기다리는 당신. 그런 당신이 조개와 뒤섞여 있다지 않은가」하며 남편의 뜻밖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와카로 담아내고 있다.

905는 山上憶良의 노래로 「어리니가 황천가는 길도 모를 것이다. 노자

5) 上野誠지음 박상현 옮김(2006) 『천년의 연가 만엽집』 제이앤씨 139쪽-140쪽 참조

돈을 주마. 황천에서 온 죽음의 사자여! 내 아이를 업어 건네다오」하며 생전에 귀여워했던 아들을 잃은 부모의 번뇌를 읊조리고 있다.

『万葉集』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슬픔을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르는 노래도 비슷하다. 『古今集』의 경우 『万葉集』의 만가는 애상가(哀傷歌)란 명칭으로 卷16에 수록되어 있다.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와 임종을 앞두고 부른 노래로 분류되어 있다.

妹のみまかりにける時、よみける

829 泣く涙雨と降らなむわたり河水まさりなば帰くるかに

前太政大臣を白河のあたりに送りける夜、よめる

830 血の涙おちてぞたぎつ白河は君が世までの名にこそありけれ

藤原敏行朝臣の みまかりにける時、よみて、かの家に遣はしける

833 寝ても見ゆ寝でも見えけりおほかたは空蟬の世ぞ夢にはありける

829는 「흐르는 눈물 비되어 쏟아져라 저승길의 강물 불어올라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하며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830에서는 「피눈물이 흘러 끓어올라 강물이 붉은 색이구나. 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白河라고 불리울 정도로 맑은 강물이었는데..」라며 붉은 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친구를 잃은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833은 죽은 친구 부인에게 보낸 노래로 「잠을 자도 꿈에 나타나고 자지 않아도 생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덧없는 세상이 꿈이지요」라며 세상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밖에도

840 母が喪にて、よめる

842 喪に侍りける年の秋、山寺へまかりける道にて、よめる

843 喪に侍りける人を弔問にまかりて、よめる

등처럼 상중에 있을 때의 슬픔을 읊은 노래가 11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죽음을 예견해 읊은 그 유명한 나리히라의

861 ついにゆく道とはかねて聞きしかどきのふけふとはおもはざりしを

(언젠가 가는 길이란 걸 예부터 들어왔지만 어제 오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노라)

와 같은 辞世歌가 6수로 전부 34수가 실려있다. 『古今集』의 특징을 보면 만요슈와 달리 공적인 장에서 부른 노래들이 극소수이고 사적인 발상에 의해 노래부르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古今集』 서문을 참고로 하면 가장 이상으로 삼고 있는 와카의 모습은 이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이상적인 모습을 잃고 사적인 영역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킨 시대에 들어서서 노래는 사적인 장에서 읊어지고 있다. 이는 와카가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많이 침투되어 친숙해져 있다는 예증이라도 생각된다.

그밖에도 『万葉集』에도 보이는 「雑歌」란 항목으로 구성된 노래들이 보이는데, 上卷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인사나 사교에 사용되는 노래,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등이 분류되어 실려 있다.

- 875 かたちこそ深山がくれの朽木なれ心は花になさばなりなむ  
(모습이야말로 심산의 썩은 나무 같겠지. 마음은 사랑의 꽃을 피우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 895 老いらくの来むと知りせば門鎖してなしと答へてあはざらましを  
(늙음이 찾아오리란 걸 알았더라면 문을 굳게 잠그고 없다고 답하고 만나지 않았을텐데...)

특히 下卷에는 다음과 같이 인생무상이나 세상일이 여의치 않음을 탄식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 948 世の中は昔よりやは憂かりけむわが身一つのためになれるか
- 949 世の中を厭ふ山辺の草木とやあなうの花の色にいでにけむ
- 953 いからむ巖のなかに住まばかは世の憂きことの聞こえこざらむ
- 964 憂き世には門鎖せりとも見えなくになどかわが身のいでがてにする

우수(憂愁) 염세(厭世) 은둔(隱遁) 해임(解任) 실각(失脚) 표박(漂泊) 등을 주제로 실려 있다. 이들 노래의 과반수 이상에 ‘세상(世の中)’이라는 歌語가 들어있는데, 이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초점으로 자신의 입장을 노래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시의 전범이 될 수 있는 세련되고 우아한 와카를 수록하는 『古今集』에 이와 같이 당시의 생활을 전하는 생생한 실감이 자리잡

6) 山口昭男(2005) 『和歌の力』 岩波書店 186쪽

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와카가 얼마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 2.3 연중행사·연회를 위한 和歌

『記紀歌謡』 속에는 와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 있다.

八雲立つ 八雲八重垣 妻籠みに 八雲垣作る その八重垣を  
구름 겹겹이 에워싼 겹올타리 아내 처소로 겹올타리 만드는 그 겹올타리를

스サノオノ尊 奇稻媛와 婚姻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는 저택을 돌아보며 축원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가요집에는 이 와카가 가장 먼저 배열되고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간생활의 시원은 바로 혼인이라는 행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혼인을 중시한 고대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6 倭は 国のまほろば たたなづく 青垣 山隠れる 倭うるはし(記紀歌謡 中卷 倭建命)  
(우리 일본은 나라가 빼어난 곳 이어 둘러진 산 첩첩 물 첩첩한 일본은 고운 나라)

『万葉集』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실려 있다.

2 やまとはは むらやまあれど とりよろふ あめのかぐやま のぼりたち 国見をすれば くにはらはけふりた つたつ うなはらは かまめたつたつ うましくにぞ あきづしま やまとのくには

題詞를 보면 「천황이 가구야마에 올라 나라를 지으실 때 지으신 노래」로 되어 있다. 「야마토에는 산도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구야마’에 산 위에 올라 온 나라 내려다보니 지평 위에는 연기 피어오르고 수평 위에는 갈매기 넘나들고 아 좋은 나라 풍요의 나라로다」라고 읊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는 쿠니미(国見)의 노래라고 분류되는데, 고대 농경사회에서 영적 능력을 가진 자가 봄철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높은 곳에 올라가 오곡의 풍요와 국토의 번영을 기원하며 국토를 바라보는 제례행위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이런 행위를 할 때도 와카의 형태를 빌어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4516 新しき年の始めの 初春の 今日降る雪の いやしけ吉事

정월의 대설은 풍년을 예고하는 길조이다. 이나바(因幡) 지방의 지방관으로 있었던 오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매년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새해 아침 賀宴에서, 이런 생각을 담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른 봄날인 오늘 내린 눈처럼 겹치거라. 좋은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만엽집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걸 보면, 자신의 이 노래가 천대 만대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지는 것을 염원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행을 떠나 배가 해안에 접안할 때도 다음과 같은 와카를 불러 무사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246 葦北の 野坂の浦ゆ 船出して 水島に行かむ波立つなゆめ

아시키타의 노사카에서 배를 띄워 미즈시마로 가자 파도여 제발 치지 말아다오

247 沖つなみ 辺波たつとも 我が背子が み船の泊り波立ためやも

바다 가운데나 해변에 파도치더라도 당신이 닻을 내리는 항구에 파도치는 일이 있을까요

『古今集』의 卷20에는 「大歌所御歌」로 분류된 와카들이 배열되어져 있다. 악기 반주를 곁들여 부르는 가요로 궁정의 공식 의식에 사용되는 흉사(凶事)를 선사(善事)로 바꾸는 신을 기리는 ‘오호키호히(大直毘)’ 노래, ‘옛 야마토 춤을 위한 노래(古き大和舞の歌)’ ‘가구라를 위한 노래(神遊びの歌)’<sup>7)</sup>, ‘다이쵸에노래(大嘗会歌)’<sup>8)</sup>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면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을 소개한다.

다음 고코(光孝)천황의 ‘다이쵸에노래(大嘗会歌)’이다.

1085 君が世は限りもあらじながはまのまさごのかずはよみつくすとも

폐하의 시대는 한도 끝도 없으리 넓은 해변의 모래알의 수효는 헤아릴 수 있어도

7) ‘가구라’는 신에게 제사지낼 때 쓰는 음악을 뜻함

8) 천황 즉위 후 첫 해에 치르는 의식으로, 11월 23일 햅쌀을 신에게 바치는 ‘니이나메사이(新嘗会)’행사를 의미한다.

이때의 ‘君が世’란 천황의 치세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고고천황이 오래오래 살아 천수를 누릴 것을 축하하고 있다. 동궁이 태어날 때에도 와카를 읊어 그 기쁨을 전하고 있다.

春宮の生れたまへりけるを時にまいりてよめる

364 峰高きかすがの山にいつる日はくもる時なく照らすべらなり

(가스가 산봉우리에 높이 뜬 태양이 구석구석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세자께서도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은덕을 베푸소서)

다음은 매년 궁중에서 행해지는 11월 新嘗會의 五節에 춤추는 무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872 天つ風 雲の通ひ路 吹きとじよ 乙女の姿 しばしとどめむ

(하늘과 바람 구름이 지나는 길 불어 닫아라 선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잠시라고 볼 수 있도록)

텐무(天武) 천황이 요시노에 행차했을 때 구름 속에서 천녀(天女)들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는 전설에 근거해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데, 환상적인 화려한 궁중의식 속에 탐닉해 있는 작자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後撰集』에 「天略の御時‘九月十五日’宮下り侍りけるに(309번)」 「延喜の御時‘きたのの行幸にみこしおかにて’(1128번)」 등이나, 『拾遺集』의 「延喜の御時飛香舎にて藤花の宴侍りける時に(86번)」 「天略の御時‘前裁の宴せさせ給ひける時’(294번)」 등의 상황설명이 붙어 있는 고토바카키를 보면 상당수의 노래들이 궁 중의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헤이안 시대의 와카를 王朝와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왕조와카의 성격이 궁정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1 君がため春の野にいでて若菜つむわが衣手に雪は降りつつ (『古今集』)

365 立ち別れいなばの山の峯に生ふるまつときかば今かへりこむ (『古今集』)

정월의 맨 처음의 쥐의 날에 봄나물을 뜯어 누군가에게 보내는 풍습을 노래한 위의 21번이나 이나바(因幡)에 부임한 아리하라노 유키히라가 송별 연에서 부른 365번을 통해서도 당시의 연중행사나 연회 등에 읊어졌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늘 공적으로 행해지는 행사나 임시 행사, 연회, 야유회 때에 와

카는 늘 읊어지는 것이었다. 이처럼 늘 공적으로 행해지는 행사나 임시 행사, 연회, 야유회 등과 같은 때에 와카는 늘 행해지는 것이었다.

궁중의 의식은 상대(上代) 이래 와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생활에도 아이의 탄생이나 성인식 등에 와카를 읊고 있으며, 기쁜 날에는 賀歌가, 슬픈 날에는 離別歌 내지는 2.2에서 취급한 哀傷歌가 읊어지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인사를 할 때도 와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새해가 되면 신년하례, 꽃이 피면 연회,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연, 결혼 때도 의식과 축하연이 있고 송별연, 회갑연 등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의식을 치르고 떠들고 먹고 마신다. 오감을 사용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떠들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기쁨을 와카로서 대접하고 와카로서 답례한다.

아직까지도 남북조 이래의 궁중행사에서 우타카이의 의식이 계승되고 있고,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정월 의례가 되어, 일본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창작된 단카가 천황, 황족의 와카와 함께 공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단면을 통해서도 와카가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2.4 교카와 교훈가

무로마치(室町) 시대 이후에는 정통과 와카와 달리 정치나 세대를 비판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교카(狂歌), 인륜이나 교훈의 의미를 담은 교훈가가 유행한다.

『万葉集』 16권에 「戲咲歌」란 형태로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고 기지에 넘치는 노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이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로부터 ‘향, 탐, 변소, 대변, 붕어, 하인’을 넣어 노래를 지으라는 심술궂은 주문을 받는 장면이 있다.

3828 香塗れる 搭にな寄りそ 河隈の 糞鮒食める いたき女奴

「향을 바른 탐에는 다가와서는 안 되지. 강모통이의 똥을 먹고 자란 붕어를 먹고 있어 참기 힘든 하녀는」라고 관련짓기 힘든 제시어를 모두 집어넣어 훌륭한 한 수의 와카를 완성시킨다. 대단한 솜씨로 아마 그 연회

9) 橋本不美男(1972) 『王朝和歌史の研究』 笠間書院 320쪽 참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이나 일상에서 소재를 취해 골계화한 노래가 『古今集』에는 俳諧歌로 분류되어 실려 있고 중세이후에는 교카로 구분되어 실려 있다. 그 중에는 언어적인 것이 기반이 된 것으로 표현에 집착하여 순간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노래도 있고, 전통적 권위나 제도를 비판하고 세대를 풍자하며 인습적 터부를 과감히 깨뜨리려고 하는 자유분방함을 담고 있는 노래도 있다.

- ① 年はただくれうくれうといひながら手に取るものはなし(『再昌集』)
- ② 秋風の明日より吹くを身にしみてけふびんぼうの被いをする(『永正狂歌合』)
- ③ 無念ながらも 嬉しかりけり 去りかぬる老い女を人に盗まれて(『新撰犬筑波集』)

①은 「해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정작 손에 남아있는 건 없다」며 ‘くれう’와 ‘とる’란 대조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배가시키고, ②는 「내일부터 가을바람 불어오기에 오늘 가난을 전부 털어내고자 한다」며 가난한 서민의 고달픈 삶을 통해 세대를 풍자하고 있다.

③은 무로마치시대 말기의 소칸(宗鑑)의 하이카이노 렌가집에 『新撰犬筑波集』에 실려 있는 렌가이다. 「원통하면서도 기뻐도다. 헤어지기 힘든 늙은 마누라를 도둑맞고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이카이 계열의 노래나 교카에는 세속적 도의를 초월하여 인습적 터부를 과감히 깨뜨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래도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인들도 한자 ‘巳와 巳와 己의 구별’은 쉽지는 않았던 모양으로, 「み(巳)は上に 己れ己(つちのと) 下につき すで(巳)にや(巳)むのみ 中程につく」와 같은 노래도 남아 있다.<sup>10)</sup>

어지러운 난세에는 落書(落首「落し文의 和製漢語」라고도 함)란 것도 있었다. 사람들 눈에 띄게 떨어뜨려 세상을 풍자하는 글이었는데, 이도 와카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太平記』에 「賢王の横言に成る世の中は上を下へぞ返したりける」와 같은 노래가 남아 있다. 「천황의 그릇된 언사로 인해 세상은 곧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고다이코(後醍醐)천황 때 천황의 왕정복고에 대항해 대궐문에 붙였던 풍자적인 내용의 와카인데, 이 라쿠가키의 효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다이코 천황의 왕정복고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10) 池田弥三郎編(1976) 『ことばの遊びと芸術』 大修館書店 222쪽

또한, 인륜이나 도덕을 권장하는 경우도 와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노래들은 教訓歌 또는 道歌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들이 있다.

不邪淫戒 寂然法師

1963さらぬだに重きが上のさよ衣わが妻ならぬつまな重ねそ(『新古今集』)

(자신의 처의 경우일지라도 죄가 무거운데 처 아닌 여자와의 관계는 갖지 말라)

981月かげのいたらぬ里はなけれども眺むる人の心にぞすむ(『続千載集』)

(달빛 즉 진리가 닿지 않는 곳은 없지만 이는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만 깃든다)

『新古今集』의 1963은 寂然法師의 노래이고, 『続千載集』의 981은 대승불교를 연 개종자인 法然上人의 노래이다. 불교의 어려운 계율을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노래는 대부분이 「釈教歌」로 분류되어 칙찬가집 등에 수록되어 있다.

불교뿐만 아니라 伊勢신관(神官)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전국시대의 현세주의적 기질을 예리하게 관찰한 「守武」는 그의 『世中百首』에서 와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의 공덕을 찬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1)</sup>

天照らす神の教へをそむかはずは人は世の中富貴繁盛

(천조신 아마테라스의 가르침을 등지지 않으면 이승에서 사는 동안 부귀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와카를 읊고 있다. 작자미상인 노래로 전란이 끊이지 않는 시기에 딸을 시집보내는 어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와카를 이용하여 난세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후처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화시키고 있다.

・乱国はさはがぬさきにまづ落ちよけふよあすよと見合わせずとも

(난세일 때는 시끄러워지기 전에 떠나라.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継子あらばわが子をおもふこころもてなをへだてなくつねにはごくめ(『女訓集』)

11) 井上宗雄(1975) 「戦国時代の和歌」 『和歌文学の世界』 笠間書院 182쪽 참조

(의붓아이 있으면 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격의없이 잘 키워라)

いつまでもあると思ふな親と金ないと思ふな運と天罰

(언제까지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와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운과 천벌)

이와 같이 와카는 사람들의 희로애락, 계절의 변화, 화조풍월의 세계만이 아니라, 서민을 교화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고 처세술까지를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특히 『新古今集』 시대 이후 이처럼 인륜이나 처세를 위한 노래들이 많이 불려지는데, 이는 당시 예술지상주의의 사고방식의 만연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은 시조를 통해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궁극적인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며 <도산십이곡> 서문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히게 하여 노래부르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듣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르러 스스로 노래하고 기뻐하며 뛰며 춤추게 하여 거의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 녹아 통하고 노래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유익하게 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를 통한 감동이 실천적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효용성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5 주술로서의 와카

『古今集』의 「假名序」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やまと歌は、人の心を種として、万の言の葉とぞ成れりける。一一中略一一力を入れずして天地を動かし、目に見えぬ鬼神をもあはれと思はせ、男女の仲をも和らげ、猛きもの心の心をも慰むるは歌なり。

와카는 사람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말이 노래로 표현된 것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천지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들조차도 감동시키고, 남녀의 관계도 부드럽게 하며 사나운 무사의 마음도 위로하는 것이 와카라는 것이다.

와카의 효용성에 관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토우타 즉 와카란 형

태는 말이 환기시키는 힘에 의해 주술의 힘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sup>12)</sup>

고대의 와카에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은 것은 2.1장에서도 언급한 대로이지만, 와카의 주술적인 힘에 기대어 사랑을 갈망하는 노래 역시 많다. 『万葉集』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2408 眉根搔き 鼻ひ紐解け 待つらむか いかも見むと思へる我を  
2575 めづらしき 君を見とこそ左手の弓取る方の眉根搔きつれ

2408번을 보면 「눈썹을 긁고, 재채기를 하고, 끈도 풀면서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빨리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만요 시대 사람들은 눈썹이 가려워진다고든가, 재채기가 난다고든가 맨 끈이 저절로 풀리면 애인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상대방에게 텔레파시라도 보내고 있는 듯한 노래이다.

2575에서는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는 사랑스런 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활을 매는 쪽 말하자면 왼쪽 눈썹을 긁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 쪽보다는 왼쪽을 중시했기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왼쪽 눈썹을 긁었던 모양이다.<sup>13)</sup>

『古今集』를 대표하는 여류가인 小野小町는

554 いとせめて恋しき時はむばたまの夜の衣をかへしてぞ着る

「님이 너무 그리울 때에는 밤에 입고 자던 옷을 뒤집어 입는다」고 노래하고 있다.

『顯注密勘抄』에 의하면 ‘밤에 입고 자는 옷을 뒤집어 입는다는 건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꿈속에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sup>14)</sup> 즉 이 노래는 옷을 뒤집어 입고 잤기 때문에 사랑하는님이 꿈에 보인다고 하는 俗信에 근거해 읊은 것이다. 사모하는 사람과 꿈에서 만난다고 하는 노래는 『万葉集』의 2937번 노래 「白たへの袖折り返し恋すればか妹が姿の夢にし見ゆる」가 환기시키는 힘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후 ‘마

12) 小田和弘(2006) 「呪歌と民俗」 『和歌とウタの出会い』 岩波書店 191쪽

13) 上野誠지음 박상현 옮김(2006) 『천년의 연가 만엽집』 제이앤씨 55쪽 참조

14) 久会神昇編(1981) 『日本歌学大系』 別卷5、風間書房、207쪽

음 속으로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길 원한다면 소매를 접어 입고 잠들면 꿈 속에서 상봉할 수 있다'는 식의 노래가 『古今集』 이후의 가집이나 모노가 타리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노래도 그러하다.

1175 うばたまの夜の衣をたちながらかへる物とはいまぞ知りぬる(『新古今集』)

1918 むばたまの夜の衣をいにしへに返すのたのみの夢もはかなし(『風雅集』)

두 수 모두 『古今集』의 발상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기도도 헛되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한탄하고 있다. 에도시대에도 이 노래는 하나의 주문처럼 유행했는데, 이는 小町の 노래가 주술가로서 어떤 영묘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① ながき夜のとのおのねふりのみなめざめ 波乗り船の音のよきかな<sup>15)</sup>

② あらたまや年の始めの年男、水をば汲んで黄金をば汲む<sup>16)</sup>

①은 에도 시대의 전기에 간행된 『夢うらない』에 실린 노래이다.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정월 초에 새해맞이 첫 꿈을 잘 꾸려면 이와 같은 노래를 읊어 베개 밑에 넣고 잤다는 사례도 있다. ②는 새해 아침 첫 물을 길어 때 그 해의 풍요와 번영을 비는 뜻으로 주문처럼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단념하고 이별해야 할 때 부르는 와카 「我思ふ君の心ぞ離れつる君も思はじ我も思はじ」도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노래를 남녀가 모두 기모노의 깃(襟)에 넣고 다니며 암송하면 효과가 있다는 설명까지 첨부되어 있다. <sup>17)</sup>

취침 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寝るぞ根太、頼むぞ垂木屋根のたけなにごとあれば起こせ棟木(埼玉県秩父郡荒川村 呪歌)」와 같은 노래도 남아 있다.

주술이란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 힘의 도움을 빌어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마술이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행위에서조차

15) 『江戸時代女性文庫』10、大空社、1994 참고. 이 노래 오랫동안 전승되어져 온 노래이긴 하지만 그 뜻은 정확히 알 수 없다. 江戸前期 『詠歌本紀』에서는 작자를 성덕태자로 보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노래로 보고 있다. 어디에도 해석은 없지만 만용을 부려 해석을 시도하자면 「長夜のとのおのねふり」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둠을 상징한다고 하니 <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라. 순풍에 돛단배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접하리라>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16) 芸術 土俗-郷土趣味 13号

17) 『修験聖典』 「法流伝授切紙類集」所収  
三谷栄一(1981) 「おまじない和歌」 『実践国文学 19号』 5쪽 참조

와카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5 7 5 7 7 이란 와카가 갖는 운율 자체에 주력(呪力)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고대 일본인들은 전통시가인 와카의 운율에 말의 정령이 깃들어 있음을 믿고, 그 영묘한 `힘이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즉, 오늘날의 의사나 성직자가 갖고 있는 힘이 와카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 3. 끝머리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일본인들은 구애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와카가 필수였다. 아이의 탄생, 성인식, 축하연, 송별연과 같은 날 역시 와카로 커뮤니케이션을 꾀하고, 비탄에 잠기거나 누군가를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와카를 매개로 하여 슬픔을 달래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을 교화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고 처세술까지를 교화하는 수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원을 비는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와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와카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와카라는 형식이 『古今集』 서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천지의 신과 죽은 사람의 영혼들조차도 감동시키고, 사랑도 쟁취하게 하는 힘이 있고,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할 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힘도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와카가 이처럼 위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5·7·5·7·7이라는 정형의 틀을 이용해 일상 속에 매몰되지 않는 가어(歌語)를 사용해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상에서 말로 하면 부끄럽고 걸뭇 부린 것 같아 어색한 마음속의 진실을 와카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와카의 형식이나 운율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좀더 천착해야 하겠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이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이러한 와카는 시대의 전환기에 부정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마사오카 시키의 사실주의 기법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일반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도 일본 각지에서는 500여종의 단가집이 발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사(結社)이외에도 주요 일간 신문지상에 매년 100만 여명이 투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시조라는 멋진 유산이 남아 있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에 정형시가가 갖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꼼꼼이 따져보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参考文献】

- 최충희 구정호 박혜성 고한범 이현영지음(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45p  
山口昭男発行(2006) 『和歌とウタの出会い』 岩波書店 191p  
山口昭男発行(2005) 『和歌の力』 岩波書店 186p  
三谷栄一(1981) 「おまじないと和歌」 『実践国文学 19号』 5p  
橋本不美男(1972) 『王朝和歌史の研究』 笠間書院 320p  
上野誠지음 박상현 옮김(2006) 『천년의 연가 만엽집』 제이앤씨 139~140p, 55p  
池田弥三郎編(1976) 『ことばの遊びと芸術』 大修館書店 222p  
井上宗雄(1975) 「戦国時代の和歌」 『和歌文学の世界』 笠間書院 182p  
久会神昇編(1981) 『日本歌学大系』 別卷5、風間書房、207p  
『江戸時代女性文庫』 10、大空社、1994、152p  
『万葉集』 및 『古今和歌集』 이하 八代集은 小学館의 日本古典文学全集을 참고로 함

## 要 旨

本稿では和歌が当時を生きていく人との生き方がどのように関係しながら発展して来たか主に万葉・平安時代の作品、その中でも生活に基盤をおいて詠まれた歌を中心として考察してみた。

その結果、和歌は日本人の愛と死、儀礼、諧謔、教訓、呪術のものと緊密に関係しながら各時代と共に日本人の生活に深く参与し、貢献したことが分かった。マスコミが十分発達した現代に伝統詩歌を通して何が言えるかと反問する人もいるかも知れないが、昔の人は和歌の力で神と死んだ人を感動させ、男女の仲を和らげ、没落した人を慰め、共同体の連帯意識を強化することまでしている。それだけではなく和歌を、自分の情緒を自由に表出する自己存立の根拠にしたり、知識と教訓を伝達する道具としたりもする。

和歌がこのような威力を発揮するのは5・7・5・7・7という定型の形を利用して日常の中に埋没しない歌語を用い、同時代を生きていく人の共感を呼び出すことができたからであろう。他にも様々な理由があると思うが、それについては機会を改めて詮索してみたい。

こうした和歌についても近代に入ってから否定論が叫ばれたりしたが、正岡子規などによって唱えられた写生技法が導入されながら短歌という名称に変えられて現在も全国から発行される短歌集は500余種を越えているし、膨大な数の人が歌壇活動をしている。

わが国にも時調という立派な文化遺産が残っているが、日本のようには活性化されていない。この機会に定型の形をした伝統詩歌の価値と意味についてよく点検し、これを活性化させる方法を模索してみるのも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和歌、恋、死、鬱憤、儀礼、教訓、諧謔、呪術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573-701)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7번지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7-343-8547  
e-mail : [ysnam@kunsan.ac.kr](mailto:ysnam@kunsan.ac.kr)